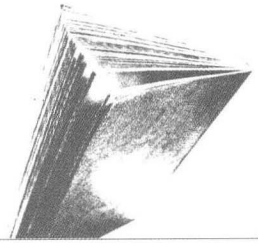


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
 - '아시아 어린이 도서축제' 창설
 - 출판문화진흥재단 재원 확충, 2008년까지 공공자금 150억 원 민간출연금 150억 원
 - 양서출판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
 -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사업 활성화. 2004년 이후 50억 원수준으로 국고지원
 - 종이 인쇄 제본 출판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
 - 서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
 - 9개 교과과정의 출판아카데미 운영 지원
- 전자출판시장의 세계 주도국 지위 확보
 -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추진 및 납본 시스템 구축
 - 전자교과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추진
 - 주문형 출판과 전자출판의 연계 시범사업 추진
 - 전자출판물의 현지어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
- 인쇄문화산업 진흥
 -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. 4년간 매년 50억 원 용자
 - 인쇄융합축제 개최 지원
- 출판유통현대화 기반조성과 유통질서 확립
 - 출판유통현대화 법인 설립 및 유통시스템 구축 시범운영. 국고 31억 원 지원
 - 전국 서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
 - 유통현대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 지원. 2007년까지 서점 1천 개, 출판사 1천 개사
 - 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 활성화
-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 -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 중심국가도서전으로 육성
 - 가칭 '출판문화국제교류센터' 설립 운영 추진
 - 도서정보 해외발신 기능 강화
 - 출판산업 해외진출 지원
- 지방출판문화 육성
 - 지방출판사의 우수출판 기획 제작 지원. 종당 1천만 원 수준
 - 기초생활권 중소서점 특성화 및 권역별 지역 대표서점 효율화 용자 지원
- 남북출판교류 활성화
 - 비이념 비정치 출판분야 우선교류
 - 서울국제도서전 개최시 북한출판인 초청 추진
 - 북경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국제도서전 남북공동관 개최 지원

임동현 기자

책 읽는 군인이 더 씩씩하다!



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. 그렇지만 한창 나이에 군에 들어간 장병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'책'이다. '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'는 지난 5월 6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'군 부대 북 스타트 운동' 출범식 및 <사랑의 책꾸러미-내 젊은 날의 책>전달식을 가졌다.

사랑의 책나누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재윤(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) 교수를 비롯 민승현(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) 본부장 등이 주축이 된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 유시민, 홍보대사로 있는 농구선수 김승현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.

이날 육군 1사단, 27사단, 해병 2사단에 있는 장병들이 전달받은 책은 《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》, 《야생초 편지》 등 20종.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민승현 공동대표는 "어머니의 마음으로 책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"면서 지식을 통한 부국강병의 시대를 강조했다.

김재윤 교수는 "군을 대학으로 만들자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출판계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"며 출판계 인사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.

책을 통해 나눔과 희망, 풍요를 찾는다는 뜻으로 시작한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진중도서관 건립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, 현재까지 14개 도서관을 설립했다. ■

김청연 기자